



지진해일 발생시 대비요령

지진해일 때 선박 위에 있을때는



## [지진해일 발생시 행동요령]

- 지진해일 특보가 발표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로에게 알리도록 합니다.
-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 발생 후 동해안에는 약 1~2시간 이내에 지진해일이 도달하므로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, 위험물(충돌시 충격이 큰 물건 등)을 이동시키며,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하도록 합니다.
- 항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이동시키고, 지진해일 특보를 경청하며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.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진동을 느꼈을 경우는 가까운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일 수 있으므로(이 경우 2~3분 이내에 해일이 내습할 수 있음) 지진해일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.



- 수심이 깊은 먼 바다에서는 지진해일을 전혀 느낄 수 없으며,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먼 바다에 있는 경우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지진해일은 일반적으로 여러번 도달하는데 제1파보다 2, 3파의 크기가 더 큰 경우도 있고, 해면의 진동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하므로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해안가로 내려오면 안됩니다.

Q : 지진해일은 어떻게 발생하고,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?

A :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 서쪽 연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.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약 1~2시간 이내에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됩니다. 육상에서도 지진해일의 속도는 사람의 움직임보다 통상적으로 빠르고, 그 힘이 강력하여 약 30cm 정도의 해일 파고라도 성인이 걷기 어려우며, 약 1m 정도라면 건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.

## [지진해일 때 선박 위에 있을 때는]

- 대양에서는 지진해일을 전혀 느낄 수 없으며,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대양에 있는 경우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항만, 포구 등에 정박해 있거나,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지진해일 발생 여부를 인지한 후,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선박을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키도록 합니다.

### ... 지진해일 주의보, 경보 발령기준

- 지진해일 주의보 : 한반도 주변지역 등에서 규모 7.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
- 지진해일 경보 : 한반도 주변지역 등에서 규모 7.5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지진해일 피해가 예상될 때

- 지진해일이 내습하면 항만 등에서는 파고가 급격히 높아지므로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,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하도록 합니다.
- 방파제 내측 등은 지진해일이 월류(越流)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선박의 정박은 피하도록 합니다.

### ... 지진해일 일반 상식은

- 해안가 주민들은 항시 지진해일에 대한 관심을 뒤야 하고, 현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.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면, 약 1~2시간 후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된다.
- 지진해일 도달 가능 영역은 동해안 전역이고, 파고 3~4m 정도의 지진해일이 내습할 수 있다.
- 지진해일은 물이 빠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도 있고, 이때 항 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다.
- 지진해일은 일반적으로 여러 번 도달하는데 제 1파보다 2, 3파의 크기가 더 큰 경우도 있고, 지진해일에 의한 해면의 진동은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.
- 지진해일 내습 속도는 사람의 움직임보다 빠르고, 그 힘이 강력하여 약 30cm 정도의 해일 파고라도 성인이 걷기 어려우며, 약 1m 정도의 해일이라면 건물이 파괴될 수 있으며,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.
- 해안가의 선박 등 다른 물건들이 지진해일에 의해 육지로 운반되어 주택에 충돌하는 때도 있고, 이러한 물체들이 유류 탱크 등에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.
- 지진해일은 바다로 통해 있는 하천을 따라 역상하기도 한다.

